

■ GM,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SUVs¹⁾ 생산 계획

○ 주요 내용

- GM은 지구온난화 가스를 덜 배출하는 에탄올 연료로 주행하는 트럭과 SUVs를 생산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이중연료 체계를 적용한 대형 SUVs를 생산할 것이라고 함
 - 휘발유와 85%까지 에탄올이 함유된 휘발유-에탄올 혼합연료를 병용할 수 있는 엔진이 장착됨
 - Chevy Tahoes, Suburbans, GMC Yukon, Yukon XL 등의 모델에 표준 장착될 것임
- GM은 이미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소형 픽업 트럭을 만들었다고 함
 - 성능 저하 없이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V-8 엔진을 재설계하고 있음

○ 목적

- GM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형 SUVs가 환경위해 유발원으로 비판받아 온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음
- 에탄올로 달리는 트럭과 SUVs를 대량 생산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기름 소비도 줄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지난 5년간 동결되어 있었던 연방 연료경제기준²⁾(Federal Fuel Economy Standards)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임
 -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는 휘발유를 덜 사용하므로 실제 연료 마일리지보다 세 배 가깝게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방 연료경제기준도 달성 가능하게 될 것임

○ 문제점

- 에탄올 연료 배급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(미국의 경우 전국에 100개 정도임)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
 -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GM의 에탄올 연료 자동차 생산계획을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음

○ 시사점

-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비를 높이려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대응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는 표준 규격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
 - 포드도 프로판올 연료로 하는 SUVs 생산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Big 5의 대응이 연료전지차 개발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

1) Sport Utility Vehicles의 약어임

2) 오일 쇼크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보다 연료 소모량이 적은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1975년에 제정한 기준으로서 승용차는 약 11.7 km/l, 미니밴, SUVs, 픽업 등의 소형 트럭은 8.8 km/l 임(소형차에 비해 휘발유를 많이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SUVs를 대상으로 한 경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환경운동가들의 압력이 거셴)